

세미나 일정

◆ 등 록 : 13:30~14:00

◆ 개회식 : 14:00~14:20

- 개 회 사 : 고충석 / 제주발전연구원장
- 축 사 : 우근민 / 제주도지사

◆ 제1주제 : 고령화시대 제주노인의 특성과 복지정책 방향 (14:20~15:20)

- 사 회 : 신행철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 표 : 김진영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토 론 : 박상철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허진영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홍연숙 / 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 제2주제 : 제주의 장수이미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15:30~16:30)

- 사 회 : 고남욱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 표 : 양창식 / 탐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 토 론 : 김형길 /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윤창훈 /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정광중 / 제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 종합토론 :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제반 내용 (16:40~17:40)

- 사 회 : 이문교 / 제주관광대학 방송연예과 교수
- 토 론 : 김석준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우남 / 제주도의회 부의장
김혜숙 /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오경생 /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최연홍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인숙 / 제주한라대학 간호과 교수
홍성철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만찬 : 18:00~19:30

개 회 사

도민 함께 하는 제주복지사회 구현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는 누구나 윤택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단순히 취약 계층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여러 복지정책들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21세기는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가, 지방정부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책임 증대, 사회복지서비스의 자활성 제고 및 사회복지 주체의 다원화 등으로 대변되는 보건복지 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적인 책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역할과 책임 공유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제주도도 '98년 말 이미 고령화사회에 도달하였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8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19.2%로서 전국평균 15.1%보다 높은 장수지역입니다.

노인 분들은 과거 제주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제주지역의 장수요인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연구는 별반 없습니다. 다만 청정한 자연환경, 깨끗한 물, 토속적 음식 등이 주 요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의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가 지난 3월 제주발전연구원 부설로 문을 열었습니다. 동센터는 지역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정책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장수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경제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것입니다. 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여건 조성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민·관의 협력 아래 21세기의 청사진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

과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려 합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과 정책들은 궁극적으로는 제주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귀착됩니다.

이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는 복지정책의 주류화를 선언하고 중앙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 아래 제주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 친화적 복지시책을 개발·시행하여 도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주복지공동체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따뜻한 제주사회 구현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고,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적 리더십이 구축될 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통해 변화된 복지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21세기 제주의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토론 참여로 의미 있는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우근민 도지사님과 도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흔쾌히 승낙하고 옥고를 써주신 김진영 교수님, 양창식 교수님 그리고 사회와 지정토론을 맡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4월 14일

제주발전연구원장 고 충 석

축 사

21세기 선진형 복지사회 구현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개원을 기념하여 선진 제주복지사회 구현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선진형 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지사회 구현은 경제적 수치로 가늠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기대하는 정서적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 가능합니다.

제주의 21세기 창조적 비전인 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하는 목표는 도민들이 정신적·육체적 건강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을 조성하는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들 모두의 과제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 개인소득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인간의 평균수명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노인인구 증가는 단순한 수적인 증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노인들은 이미 소비와 정책결정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소입니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부양문제 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질적인 면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주도도 '98년 말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27%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도달하였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의 80세 이상 고령인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19.2%로 전국 평균 15.1%보다 높은 장수지역입니다.

특히 노인들은 과거 제주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후손들인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도가 '장수문화연구소' 설립을 계획하고 우선 발전연구원 부설 '장수문화연구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이런 시대적 사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금번 제주발전연구원 부설로 개원한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는 제주지역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장수요인들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소득과 연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낼 것입니다.

피터트러커는 21세기 유망산업으로 교육산업 및 건강관리산업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역의 장수요인을 활용하여 장수관련 산업을 육성할 경우 지역에 상당한 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세미나에 거는 도민들의 관심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신 제주발전연구원 고충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여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소중하고 알찬 시간이 되시길 빌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4월 14일

제 주 도 지 사 우 근 민

주제 발표

선진 제주복지사회 구현과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의 역할

제1주제 : 고령화시대 제주노인의 특성과 복지정책 방향

김진영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제2주제 : 제주의 장수이미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양창식 / 탐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종합토론 :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제반 내용

김석준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우남 / 제주도의회 부의장

김혜숙 /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오경생 /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최연홍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인숙 / 제주한라대학 간호과 교수

홍성철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고령화 시대 제주노인의 특성과 복지정책 방향

김진영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60년대 이후 급격히 진행된 '압축성장'(compressed growth)에 힘입어 보건위생 개선, 평균수명 연장 등의 영향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평균수명은 선진국의 그것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수명 연장 속도는 매우 빠르다. 1960년에는 54.2세에 불과하던 것이 1980년 65.8세, 1990년 71.6세, 2000년 75.9세로 연장되었고 향후 2020년 80.7세, 2030년 81.5세, 그리고 2050년에는 83.0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남녀별 평균수명의 차이는 2000년 7.4세로 여자가 높지만 이 같은 성별 차이 또한 2020년 6.6세, 2050년에는 6.2세로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2001년 현재 한국사회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6%인 358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17.2%), 이탈리아(18.2%), 프랑스(15.9%) 등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2030년에 이르면 23.1%가 되어 프랑스(23.2%) 등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는 사회를 개념화할 때 사용하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단계로 이미 2000년(7.2%)에 진입하였다. 2019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는 외국과 비교해도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7%(고령화사회)에서 14%(고령사회)로 증가하는 기간이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1년, 독일이 40년, 영국이 47년, 그리고 일본은 24년이 소요된 데 비해, 한국

사회는 그 보다도 훨씬 짧은 19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 노동력 확보 문제, 노년부양비의 증가 등과 더불어 많은 사회정책적 변화를 수반한다. 연금, 의료보험, 부양 등 사회보장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장수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런만큼 제주가 장수지역이라는 명칭 부여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제주의 장수지역 이미지는 ‘청정지역’, ‘평화의 섬’, ‘휴양도시’ 등의 이미지와도 잘 조화될 수 있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도가 장수문화연구센터를 개설하는 것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제문제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제주를 장수지역으로 브랜드화하고 이를 국제자유도시 발전과의 상관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실천의 차원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이러한 장수사회 발전 전략의 구상을 위하여 고령화시대 노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복지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통계적 특성

제주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산출해보면 1980년 5.1%, 1985년 5.2%, 1990년 5.8%, 1995년 6.6%, 2000년 8.0%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이미 전국 평균 7.2%를 크게 웃돌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제주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8.3%를 차지한다(<표 1> 참조).

<표 1> 제주지역 노인인구의 추이

(단위: %, 명)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전체인구(A)	462,609	488,300	514,436	512,091	542,368	546,889
65세 이상 인구(B)	23,702	25,438	29,832	33,892	43,334	45,534
80세 이상 인구(C)	4,787	5,323	6,552	7,608	8,313	8,769
85세 이상 인구(D)	1,652	2,258	2,700	3,313	3,849	3,920
B/A(%)	5.1	5.2	5.8	6.6	8.0	8.3
C/B(%)	20.2	20.9	22.0	22.4	19.2	19.3
D/B(%)	7.0	8.9	9.1	9.8	8.9	8.6

주: 1980~1995년의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2000~2001년의 것은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이다.

자료: 제주도, 「제41회 제주통계연보」(2001), 「2001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2002)에서 구성

지역별로는 북제주군이 13.1%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남제주군이 12.7%로 다음이었다. 반면에 시지역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는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서귀포시 8.2%, 제주시 5.7%). 전체적으로 볼 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에서 80세 이상과 8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인구고령화가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시·군별 노인인구 현황(2001년 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65세 이상 노인 중 8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65세 이상 노인 중 8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계	8.3	5.2	11.4	19.3	11.0	23.0	8.6	3.8	10.8
제주시	5.7	3.7	7.7	19.0	10.6	23.0	8.6	3.9	10.8
서귀포시	8.2	5.4	11.0	18.4	10.7	22.2	8.1	3.7	10.3
북제주군	13.1	0.8	18.6	20.5	11.6	24.2	9.3	3.8	11.5
남제주군	12.7	7.3	16.4	18.6	11.2	21.9	8.1	3.5	10.1

자료: 제주도, 「2001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2002)에서 구성

전국 16개 시·도별 노인인구 현황을 비교해보면, 제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8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제주지역의 80세 이상 고령노인은 8,313명인 19.2%로 전국(평균 15.1%)에서 가장 높다. 이것은 제주지역이 장수지역임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에 충분하다. 제주지역 다음으로 8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시·도를 보면, 강원 16.9%, 광주 16.4%, 경북 16.1%, 충북 15.7%, 전북 15.6%, 서울 15.6%, 대전 15.6%, 전남 15.5% 순으로 나타난다. 노인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85세 이상 고령노인인구의 비율(8.9%)도 전국 평균 5.7%에 비하면 매우 높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다.

<표 3> 시·도별 노인인구 현황(2000년 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총인구(A)	65세 이상 인구(B)		80세 이상 인구(C)		85세 이상 인구(D)	
		인구 수	B/A(%)	인구 수	C/B(%)	인구 수	D/B(%)
계(전국)	47,732,558	3,355,614	7.03	507,296	15.12	190,209	5.67
서울	10,311,314	558,566	5.42	87,157	15.60	33,018	5.91
부산	3,796,506	229,075	6.03	28,544	12.46	10,429	4.55
인천	2,545,769	138,316	5.43	20,502	14.82	7,320	5.29
대구	2,524,253	149,045	5.90	20,538	13.78	7,410	4.97
광주	1,371,909	77,325	5.64	12,659	16.37	5,044	6.52
대전	1,385,606	75,769	5.47	11,790	15.56	4,411	5.82
울산	1,040,225	42,119	4.05	6,433	15.27	2,395	5.69
경기	9,219,343	524,807	5.69	78,026	14.87	29,048	5.53
강원	1,554,688	143,945	9.26	24,289	16.87	8,859	6.15
충북	1,497,513	136,160	9.09	21,374	15.70	8,016	5.89
충남	1,921,604	215,059	11.19	32,684	15.20	12,393	5.76
전북	1,999,255	205,807	10.29	32,171	15.63	12,116	5.89
전남	2,130,614	254,370	11.94	39,553	15.55	15,677	6.16
경북	2,797,178	300,614	10.75	48,355	16.09	17,443	5.80
경남	3,094,413	261,303	8.44	34,908	13.36	12,781	4.89
제주	542,368	43,334	7.99	8,313	19.18	3,849	8.88

자료: 통계청,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2001)에서 구성

한편,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8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장수마을을 살펴보면, 행정구역상으로 군의 리지역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4>참고).

<표 4> 마을별 80세 이상 인구비율(2000년 말 현재)

지 역 명	전체 인구			65세 이상 %(인구수)	80세 이상 %(인구수)	비 고
	계	남	여			
애월읍 고성2리	368	175	193	20.1(74)	43.2(32)	중산간
한경면 금등리	191	90	101	18.3(35)	31.4(11)	해안
애월읍 고성1리	763	388	375	10.6(81)	30.9(25)	중산간
한림읍 금악리	1,165	580	585	13.6(159)	30.8(49)	중산간
안덕면 감산리	995	509	486	13.1(130)	30.0(39)	해안/중산간
한림읍 한수리	813	413	400	8.6(70)	28.6(20)	해안
한경면 산양리	554	287	267	14.1(78)	28.2(22)	중산간
애월읍 유수암리	786	421	365	9.3(73)	27.4(20)	중산간
한림읍 강구리	353	166	187	12.5(44)	27.3(12)	중산간
대정읍 신도3리	314	156	158	17.5(55)	27.3(15)	중산간
성산읍 삼달2리	276	132	144	14.9(41)	26.8(11)	해안
한경면 용당리	323	153	170	23.5(76)	26.3(20)	해안
안덕면 상창리	362	176	186	11.6(42)	26.2(11)	중산간
한림읍 월령리	442	220	222	15.6(69)	26.1(18)	해안
남원읍 신흥2리	626	320	306	12.3(77)	26.0(20)	중산간

주) 80세 이상 인구비율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수치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

자료 : 도·시·군 인구조사 결과

3. 장수노인의 일상생활 활동 수행 정도별 특성

일상생활 활동 수행 정도는 노인들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장수가 단순히 연령상의 장수나, '와상(臥床)장수'가 아니라 '건강장수'여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노인들의 일상생활의 수행 정도에 대한 자료는 건강한 노년생활의 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데 뿐만 아니라 노인건강에 대한 임상적 평가를 하는 데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기초적 일상생활 활동(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활동은 옷입기, 세수, 목욕, 식사, 이동, 화장실 사용 등과 같이 생활 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기능들을 포함한다. 일상생활 활동 척도는 노인의 기능 평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로서, 주로 입원 환자처럼 기능이 많이 떨어진 노인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장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표 5> 성·연령별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단위: %)

구 분	전체	성		연령		
		남자	여자	80~84	85~89	90세 이상
옷입기(n.s/**)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85.3	87.6	84.4	90.8	85.3	77.6
부분적으로 남에게 의존	6.9	5.9	7.3	5.5	7.8	7.7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	7.8	6.5	8.3	3.7	6.9	14.7
세수하기(*/***)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79.2	85.9	76.3	87.7	78.9	67.9
부분적으로 남에게 의존	10.4	5.5	12.6	7.3	11.2	13.5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	10.4	8.6	11.1	5.0	9.9	18.6
목욕하기(*/***)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61.9	70.8	58.0	72.1	60.3	50.0
부분적으로 남에게 의존	21.3	17.3	23.0	19.6	23.8	19.9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	16.8	11.9	19.0	8.3	15.9	30.1
식사하기(n.s/*)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89.3	91.4	88.4	94.0	89.2	82.7
부분적으로 남에게 의존	4.9	2.7	5.9	2.3	4.8	9.0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	5.8	5.9	5.7	3.7	6.0	8.3
이동하기(n.s/*)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87.3	91.3	85.5	92.2	85.8	82.7
다른 사람의 도움·부축 필요	9.1	6.5	10.2	6.4	10.3	10.9
들것에 실리거나 업혀야 가능	3.6	2.2	4.3	1.4	3.9	6.4
화장실 사용(*/***)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85.8	90.3	83.9	92.7	85.8	76.2
부분적으로 남에게 의존	10.6	8.6	11.4	5.9	10.8	16.7
화장실 사용 불가능	3.6	1.1	4.7	1.4	3.4	7.1
대소변 조절(*/n.s)						
스스로 조절	85.3	89.7	83.4	89.5	87.0	76.9
가끔 조절 실패	10.7	8.6	11.6	8.2	9.1	16.7
조절 불가능	4.0	1.7	5.0	2.3	3.9	6.4
계 (명)	100.0 (607)	100.0 (185)	100.0 (422)	100.0 (219)	100.0 (232)	100.0 (156)

* p<.05, **<.01, ***<.001

주) /의 앞부분은 성과의 관계, 뒷부분은 연령과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인지 여부를 나타낸다.

출처: 김진영, 「장수노인의 일상생활 활동 수행능력」, 전경수 외, 『제주장수지역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도, 2002. <표 6~7>도 동일

ADL 항목들의 빈도분포를 정리하면 <표 5>과 같다. 7개 동작항목 중 가장 수행능력이 가장 높은 것은 '식사하기'와 '이동하기'로서 각각 89.3%, 87.3%의 노

인들이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해내고 있다. 반면에 수행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것은 '목욕하기'인데, 38.1%의 노인이 남에게 의존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수하기' 동작의 경우도 20.8%의 노인들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하고 있다.

7개 동작항목 중 4개 항목에서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의, 6개 항목에서는 연령이 높은 층보다는 낮은 층의 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성별 그 자체가 동작수행능력에서 차이를 갖기보다는 연령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사대상 여성노인의 평균연령(87.2세)이 남성노인(85.7세)보다 높아 여성의 고령화 정도가 크기 때문에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전국단위의 보건사회연구원 조사(1998)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도구적(수단적) 일상생활 활동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보다 복잡한 차원의 기능을 포함한다. IADL 지수는 주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기능 상태를 평가하는데 많이 사용되며, 입원 후 퇴원하려는 환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IADL의 10개 동작항목들을 요약하면 <표 6>, <표 7>과 같다. 도구적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에서는 기초적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에 비해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한 경우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 도구적(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척도가 기초적인 일상생활 외에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측정하는 것인 만큼 ADL보다 다소 복잡적이고 어려운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가 80세 이상의 고령노인임을 감안하면, 동작수행에 있어서 혼자 할 수 있는 정도는 전반적으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혼자서 동작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약 챙겨먹기' 동작에서가 가장 높고 '전화사용' 동작에서 가장 낮다. '근거리 외출', '몸단장' 동작에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 성·연령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단위: %)

구 분	전 체	성		연령		
		남자	여자	80~84	85~89	90세 이상
몸단장(**/***)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74.3	82.8	70.6	83.1	74.1	62.2
부분적으로 남에게 의존	15.7	8.6	18.7	11.4	17.7	18.6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	10.0	8.6	10.7	5.5	8.2	19.2
집안일(***/***)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50.8	39.5	55.7	58.0	56.9	31.4
부분적으로 남에게 의존	17.1	16.2	17.5	15.5	15.6	21.8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	17.8	13.5	19.7	10.5	15.9	30.8
집안 일을 하지 않는다	14.3	30.8	7.1	16.0	11.6	16.0
식사준비(***/***)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47.6	29.7	55.5	55.3	51.3	31.4
부분적으로 남에게 의존	18.9	22.2	17.5	19.6	18.1	19.2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	17.3	12.4	19.4	8.7	16.8	30.1
식사준비를 하지 않는다	16.2	35.7	7.6	16.4	13.8	19.3
빨래하기(***/***)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47.0	28.6	55.0	55.2	49.1	32.0
부분적으로 남에게 의존	15.5	15.7	15.4	14.2	15.9	16.7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	18.3	13.5	20.4	10.5	17.7	30.1
빨래를 하지 않는다	19.2	42.2	9.2	20.1	17.3	21.2
근거리 외출(*/***)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75.3	82.7	72.0	84.0	77.1	60.3
도움 받으면 외출 가능	14.3	11.4	15.6	11.0	12.1	22.4
도움 받아도 외출 불가능	10.4	5.9	12.4	5.0	10.8	1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07)	(185)	(422)	(219)	(232)	(156)

* p<.05, **<.01, ***<.001

이같은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의 일로 규정되어 온 활동항목들(‘집안 일하기’, ‘식사하기’, ‘빨래하기’)의 경우는 여성의 수행의 능력이 훨씬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수행능력이 낮은 것은 여성노인의 평균연령이 남성노인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ADL에서도 비슷하다.

<표 7> 성·연령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앞 표에 이어 계속)

(단위: %)

구 분	전 체	성		연령		
		남자	여자	80~84	85~89	90세 이상
교통수단 이용(***/***)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52.4	69.2	45.0	67.1	50.9	34.0
부분 의존(버스, 전철)	19.6	12.4	22.7	15.5	21.1	23.0
부분 의존(택시, 승용차)	17.0	11.9	19.2	11.4	19.0	21.8
남의 등에 업히거나 들것에 실려야만 이용 가능	11.0	6.5	13.1	5.9	9.0	21.2
물건사기(***/***)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49.1	68.1	40.8	63.0	48.7	30.1
부분적으로 남에게 의존	25.5	14.6	30.3	21.0	29.3	26.3
다른 사람이 동행해주어야 가능	5.8	3.2	6.9	5.5	5.6	6.4
쇼핑불가능, 전적으로 남에 의존	19.6	14.1	22.0	10.5	16.4	37.2
금전관리(***/***)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45.5	63.2	37.7	56.6	45.7	29.5
부분적으로 남에게 의존	29.5	20.0	33.6	26.5	30.2	32.7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	15.8	11.9	17.5	7.3	16.8	26.3
금전관리를 하지 않는다	9.2	4.9	11.2	9.6	7.3	11.5
전화사용(***/***)						
혼자서 송수신 가능	36.3	59.5	26.1	50.2	34.9	18.6
제한적으로 송수신 가능	12.5	10.8	13.3	16.0	12.5	7.7
수신만 가능	29.8	12.4	37.4	22.4	33.2	35.3
전화사용 불가능	21.4	17.3	23.2	11.4	19.4	38.4
약 챙겨먹기(n.s/***)						
도움 없이 혼자서 가능	77.8	83.8	75.1	85.8	81.0	61.5
부분적으로 남에게 의존	10.9	7.6	12.3	8.2	8.7	17.9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	11.3	8.6	12.6	5.9	10.3	2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07)	(185)	(422)	(219)	(232)	(156)

* p<.05, **<.01, ***<.001

3) 일상생활 활동 수행능력별 노인집단의 분류

그러면 이제 조사대상 노인들의 일상생활 활동 수행능력 정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보기로 한다. 80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도구적 일상생활보다는 기초적 일상생활이 삶의 질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ADL 중심으로 일상생활 수행 가능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8>에서처럼 기초적 일상생활능력(ADL)을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이동하기의 동작과 옷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의 동작 등 2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 제한 정도에 따라 그 유형을 최중증, 중증, 경증 등으로 분류하였다. <표 9>은 이 판별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분류해본 것이다.

<표 8> 일상생활 수행 제한(장애)을 경험하는 노인의 분류기준

유형	분류 기준
최중증 이동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식사하기	(아래 ADL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전혀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화장실 출입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다른 사람이 전적으로 먹여주는 경우 ※ 완전 와상상태인 경우
중증 이동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식사하기 옷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최중증 상태가 아니고 아래 ADL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이동이 가능한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화장실 출입이 가능한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스스로 식사가 가능한 경우 전혀 혼자서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경우 전혀 혼자서 머리감기, 세수, 양치질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사람이 전적으로 도와주는 경우 ※ 대부분 와상상태인 경우
경증 옷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최중증, 중증상태가 아니고 아래 ADL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 ※ 대체적으로 앉아 있으나 가끔씩 누워 있는 상태인 경우

출처 : 선우덕,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실태 및 정책수립 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66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에서 구성

<표 9>에서 보듯이 측정된 ADL의 항목들에 기초할 때 조사대상자 중에서 혼자서 기초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갖고 있는 노인은 42.2%이다. 기초적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노인은 57.8%로 추정된다. 80세 이상 노인의 특성을 감안하

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경험하는 노인 비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정도를 최중증, 중증, 경증 등 세 유형으로 분류할 때, 최중증은 7.2%, 중증은 21.8%, 경증은 28.8%로 추계되고 있다. 최중증노인은 하루 종일 자리에 누워지내야 하는 만큼 가족수발자의 수발상태와 관계없이, 그리고 중증노인은 주간에도 자리에 누워지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가족수발자의 수발상태와 여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것이 가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증노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서비스보다는 적절한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표 9> 일상생활 활동(ADL) 수행 가능 정도별 노인인구 규모

구 분	인 원	%
혼자서 일상생활 가능한 노인	256	42.2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노인	351	57.8
(최중증)	(44)	(7.2)
(중증)	(132)	(21.8)
(경증)	(175)	(28.8)
계	607	100.0

4. 장수노인의 일반적 특성

장수노인, 특히 백세인(centenarian)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는 아직 흔하지 않다. 장수자가 많이 배출된 장수지역 연구와 더불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수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세 이상 장수인은 전북 순창군, 경북 예천군, 전남의 보성군·영광군·곡성군, 경남 거창군 등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0년대 장수마을은 전남 해안과 제주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비해,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지리산을 축으로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을 잇는 중산간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12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백세인은 총 2,228명(남자 168명, 여자 2,060명)에 이른다. 85세 이상의 남성 장수인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지역에, 여성 장수인은 제주, 전남을 비롯한 서남지역에 편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 장수지역 10개 시·군 가운데 9곳이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성 장수지역 10개 시·군 가운데 9곳이 제주·전남지역 편중되어 있다. 대표적인 남성 장수지역은 강원도 인제·화천군, 여성 장수지역은 북제주군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2. 10. 6일자, '한국인 첫 장수비결 보고서').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85세 이상 인구 비율(長壽度)을 보면, 인제와 화천의 남성 장수도는 각각 7.99%와 7.78%였다. 북제주군의 여성 장수도는 11.89%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2000년 발표한 각국의 평균수명을 비교하면, 일본, 싱가포르, 호주와 노르웨이, 스웨덴, 필란드, 네덜란드 등의 북해지역,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말타, 모나코 등의 지중해 지역이 세계적인 장수지역으로 꼽힌다.

한국의 백세인의 특성에 대한 자료로 최근 서울대 의학연구원 체력과학노화연구소(박상철 교수 외)와 조선일보 팀이 2002년에 행한 면접조사가 주목된다. 이 연구팀이 백세인 150여명을 심층 면접하여 얻어낸 그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식생활

활동량에 따라 식사량이 다르다. 상식적이고 전통적인 식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즉 시골 밥상과 같은 전통적인 식단으로 일정한 양을 규칙적으로 가족과 함께 식사한다. 주식으로 쌀밥이, 반찬으로는 데친 나물류, 찌개, 된장, 고추장, 김치, 쌈장, 해조류 등이 선호된다. 튀긴 음식, 짠 음식을 피한다. 죽보다는

밥+국+반찬을 고루 갖춘 식사를 선호한다.

최근 세계적인 장수지역의 장수식단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률적인 결론은 아직 이른다.

○ 성격

외부의 충격에 대해 태평하며(순응적), 닥쳐올 일에 대한 걱정을 미리 하지 않는 낙관적인 성격이 공통적이다. 자기 일에 대한 고집과 자기 주장이 강하다. 쾌활하며, 적극적이다.

○ 의학적 특성

당뇨병과 간염 환자가 드물다. 콜레스토롤 수치가 낮았다(한국인 평균치 188 mg/dl보다 10이상 낮았다: 평균 174.6mg/dl).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0~20%가 당뇨를 앓고 있지만, 백세인은 5%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 인구의 6.3%가 B형 간염 보균자인데 비해 인터뷰한 백세인 가운데 B형 간염 보균자는 전무하다. 거의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질환과 장애가 한꺼번에 나타나 사망하는 과정을 겪었다. 암이나 동맥경화 같은 퇴행성 질병보다는 감기나 가벼운 폐렴 등이 주요 사망 원인이었다.

○ 활동량

부지런하고 신체를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세계적인 장수지역 대부분이 평야지대가 아니라 산간지역이라는 점도 신체 활동량과 장수간의 상관성을 시사한다. 오키나와와 생활환경이 비슷한 제주지역이 8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것도 나이를 잊은 자립성과 근면성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 노동도 즐겁고 자발적으로 하면 운동효과가 크고 육체건강과 정신건강에 유익하다. 일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노는 사람보다 14년 정도 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적극적 '다리품 팔기'와 왕성한 '뇌 사용하기'를 통해 총괄적 활동량을 제고시키는 것은 장수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 배우자 유무

인중, 성별에 관계없이 사람이 100세까지 살 확률은 10만명 가운데 1명이며 (0.001%), 부부 모두가 백세인이 될 확률은 600만쌍 중의 1쌍으로 밝혀지고 있다. 인터뷰한 백세인 49명 가운데 배우자와 동거를 하는 경우는 6.1%(3명)에 불과하였다. 백세인들이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 살았던 기간은 남성이 평균 19.5년이었고 여성은 37년을 조금 넘었다. 이는 배우자가 없어도 장수할 수 있으며 배우자 사별기간이 남성 쪽이 짧다는 것은 '결혼이 남성에게 남는 장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 성차이

백세인 가운데는 여성이 남성보다 11배쯤 많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일본 1 : 5).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남녀비는 1 : 2, 85세 이상은 1 : 4, 100세 이상은 1 : 7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나이가 들수록 남녀 인구의 편차가 크며, 지역별로 그 비율이 다양하다(1 : 6~1 : 30). 이렇게 지역별로 인구 편차가 다양한 것은 지역적, 생태적 환경과 생활양식의 차이가 장수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장수에 유리하다는 점(생물학적, 유전적 요인)과 남성들이 그동안 여러 사회·정치적 위험(전쟁 등)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여성 장수 인구가 유별나게 많은 것은 남녀 노인들의 노년기 활동량의 차이에 비롯되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국가별 성별 장수도 비교에서도 남성 장수지역이 많이 존재한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사막지대, 중국의 신강성, 히말리아 산맥지역에서 남성 장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 지역은 거친 환경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남성들이 오래 산다는 것은 환경적 요인이 장수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남성들이 험한 자연환경에서 가족을 돌보고, 가사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때 장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 가족관계

가족은 개인의 생활양식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건강 장수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단위'이다. 가족은 노년기 정신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생활환경인 것이다. 백세인 49명을 대상으로 면접한 결과 3분의 2인 67.5%가 며느리와 생활하고 있었고, 부양자와의 관계에서는 73.8%가 '보통 이상으로 좋다'는 대답을 하고 있었다.

○ 사회관계

백세인들은 혼자 살더라도 마을 사람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낙관적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한 대인관계의 지속적 경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대인관계를 갖던 상대방의 죽음은 가족구성원의 죽음 못지 않게 백세인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구성원간 유대가 강한 마을일수록 '줄초상'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백세인들의 심리적 건강상태와 대인관계간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예라 할 만하다. 이런 점에서 함께 장수할 수 있는 지역 단위 모임 공간과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 일본의 나가노현(長野縣)은 지역노인들간의 커뮤니티 구성이 잘 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은 80년대까지만 해도 단명지역이었지만 현재 일본의 46개 현 가운데 남성 평균수명 1위(78.9세), 여성 평균 수명 4위(84.5세)에 올라 있다. 이곳 노인들은 매일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공동 행사들을 가진다.

백세인들은 남에게 빚지고는 못 살았으며, 서로간에 '셈'이 분명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마을단위의 모임에 꼭 참석했고, 나이가 20~30세 어린 노인들과 '친구'로 지낸다.

5.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다른 여타의 복지분야보다 그 예산이나 내용에 있어 일정 수준에 이른 편에 속한다. 노인인구의 규모 증가, 정치사회적 세력화, 유교문화적 전통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지역 노인복지 현황

을 점검하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의 정책적 함의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의 현황

- 무료요양시설(2개소)을 제외한 무료전문요양시설(1개소), 무료양로시설(5개소), 유료요양시설(1개소) 등이 정원에 못 미치고 있어서 시설 활용도가 낮다.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시설 입소에 대한 노인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가정봉사원과견시설(4개소)에 비해 주간보호시설(2개소)과 단기보호시설(1개소)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 수준이 낮은 편이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당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294개소), 회의실, 물리치료실, 노인교실, 경로식당, 공동작업장,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목욕실 등을 갖춘 노인복지회관(5개소)이 운영되고 있다.
- 노인복지시설 이용에 있어 여성노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 노인들도 시설 이용을 선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노인취업알선센터(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근린생활권 내의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 경로연금과 같은 소득보장프로그램과 건강진단비, 간병비 지원과 같은 건강지원서비스 대상이 일부 노인에 한정되어 있고, 지원비도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2) 노인복지의 정책적 함의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다양하다.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만성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를 안게 되고,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고독감과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노인문제를 고려할 때 노인복지정책은 이들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가정적 책임의 문제에서 사회적·국가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크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은 노후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지역적, 문화적 특성과 노인의 특성을 잘 고려한 노인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지역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움직일 수 있는 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독립심과 자립심의 정도가 매우 높다. 그래서 노인단독가구가 많으며 좀처럼 노동을 회피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만큼 복지정책도 노인들의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태도에 기초하여 구성·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제주노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족관계 못지 않게 친구나 이웃과의 사회관계와 사회연대성이 활발하므로 지역사회 지연성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의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복지시책과 사업들은 변화하는 시대적·상황적 욕구에 유관 적합하게 적용하면서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젊은 세대 못지 않게 노인의 욕구 또한 고정되어 있거나 화석화되어 있지 않다.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노인복지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것이었으며, 이같은 획일적인 복지서비스로는 지역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셋째, 경제적·신체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시설보호 등을 통해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노인과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있게 생계를 지원하고, 경로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취업알선센터의 활성화, 공동작업장의 확대 등을 모색함으로써 일거리, 고용기회의 제공과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복지정책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고독과 불안은 많은 부분 그동안 갖고 있었던 사회적 역할을 상실함에 따라 사회참여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 모임을 조직하여 지역실정 및 전직 경험에 알맞은 청소년교육, 선도활동 등으로 봉사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노인들의 전직, 사회적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일거리에 대한 욕구 충족과 경제활동 지원을 추구하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Community Senior Club)의 시범적 실시가 검토될 만하다.

지역단위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누리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지역사회, 근린생활권 내에 기반을 둔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노인들이 가족 및 친족, 이웃들과의 사회관계망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다섯째,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건강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의 노인요양 시설에 대한 서비스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편임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관련 서비스(노인건강진단비 지원,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 노인건강진단결과 유질환자진료비 지원, 노인복지

시설 물리치료사 인건비 지원 등), 재가노인 복지 및 건강증진사업(간호사 경로당 순회 사업 등)을 확대 실시하여 노인들의 보건과 건강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상생활 동작 능력의 제한으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공적 장기요양보호체계를 개선하고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home and community-based care) 중심의 노인요양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발자(care-givers) 지원체계의 마련(수당제도, 가족간호휴가제도의 도입 등)과 장기요양시설의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연관된 세부적 정책과제들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가족 - 지역사회 - 국가 세 주체간에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문제를 해소하는 노인복지의 다면적 접근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제 노인문제는 가족의 능력(효의식, 부양책임 등) 범주 내에서 해결되기에는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전통적인 가족의식과 가치관이 약화되었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족의 노력만으로 복잡한 노인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전통적으로 가족의 틀 내에서 수행되어 왔던 노인부양 기능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요보호층 노인인구의 수가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보호책임도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현단계 사회안전망 구축의 차원에서 국가복지의 범위와 수준을 꾸준히 확대시키는 것이 요청되며, 이와 더불어 지역단위에서도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노인의 복지욕구에 조응할 수 있도록 인력, 전달체계, 프로그램 그리고 재정 등을 유기적, 효율적으로 구체화시키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른바 '제주형 노인복지정책'은 보편적 틀로서의 사회복지제도와 지역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즉, 지역주민의 점증하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상부상조의 수놓음정신, 근검절약 정신 등 우리의 공동체적 정신유산과 장점을 접목시켜 개인, 기업 등 민간부문과 지역사회가 복지향상에 함께 참여하여 더불어 사는 제주복지공동체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일곱째, 국제자유도시 추진 7대 선도과제 가운데 하나인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은 실버산업 프로젝트와의 연계체계 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버산업의 이념과 목표는 전통적인 노인복지의 그것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양자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적 관계 설정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에 따라 통합과 갈등의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민소득의 증가와 각종 사보험, 사회보험, 개인연금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층이 증가할 것이며 이들은 교육수준도 높아 과거 사회에서의 노인과는 상이한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여 여생을 보내기보다는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노후생활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띠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상에서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고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인과 관련된 이러한 사회변화는 공공부문에서의 복지재정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며, 공공부문의 재정여력은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민간부문이 복지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복지공급의 다원화, 복지 다원주의는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선진 복지국가의 일반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버산업은 노인들의 생활의 안정과 보호, 편의를 위해 민간차원에서 영리목적에 입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 복지서비스와 구별된다. 그러나 실버산업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적 측면이 소홀히 되고 영리적 측면이 극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실버산업에 있어서 이 두 측면의 조화는 매우 중요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버산업의 성격상 영리성의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노인의 권리와 안전의 보장, 사회적 공익성과 형평성의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절한 감독권과 통제권이 개입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노인의 일상생활 능력과 생활세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일상생활 욕구와 능력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일상생활의 자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과학적, 의료보건학적, 생태학적 접근 등 학제적 차원의 연구를 체계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작업은 학문적으로 제주장수학의 체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장수의 원인들을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물론 지역적 비교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수가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와상장수가 아니라 건강장수여야 하는데, 제주장수학은 건강장수와 관련된 인자들을 밝히는 데서 크게 기여함은 물론, 실천적으로는 ‘장수형 복지정책’을 일구어내는 지적 인프라가 될 것이다.

제주장수문화센터의 출범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며 제주를 ‘장수 아일랜드’로 전환시키는 큰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수제주' 이미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양 창 식

(탐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I. 서론

예로부터 인간은 오래 사는 것이 염원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어 왔다. 똑같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단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 수명의 차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적 현상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경제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식생활의 개선과 의학기술이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과 수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건강과 운동' 그리고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는 또 한번 장수의 열기와 필요성을 강조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90년 후반부터 장수의 걸림돌은 바로 비만에서 온다는 인식의 확산은 온 국민을 '운동 신드롬'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개인적인 노력으로 평균수명은 급기야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령인구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결국 장수한다는 것은 개인과 가족적인 측면에서는 축복받을 일이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는 비용부담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고령화 진전과 예상되는 주요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9%인 377만명으로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또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1990년에 이미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에 달했으며, 2030년이 되면 28%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2030년에 이르면 일본 인구의 1/3이 노인인구로 구성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인구는 선진국에서조차 사회적인 문제로 비약이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장수시대를 무척대고 좋아할 계제만은 아니라는데 꺾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무병장수는 모든 인류의 소망이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장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장수로 인한 누구로부터의 불이익을 받을 책임이 없다. 따라서 고령인구가 증가한다하여 사회로부터 눈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제주도는 장수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수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역으로서도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다. 더구나 관광휴양지인 제주도로서는 장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장수지역의 이미지를 지역경제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것을 매력적으로 다듬어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힘을 가질 수 있어야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면 타지역의 사람들을 내 고향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지에 고심을 하고 있다. 그 힘이 관광을 비롯한 어떤 산업이든 사람들이 찾아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이 가치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수지역이 주는 이미지와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다른 유사 이미지들을 연계 또는 통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장수지역으로 공인되고 있는 지역특성을 매력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선 장수의 지역적 의미를 위협적인 측면과 기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한 후, 장수이미지를 지역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원론적 이론을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수이미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적 여유로 인하여 장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장수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시초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주 장수' 브랜드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II. 장수의 개념 및 지역적 의미

1. 장수의 개념과 의미

장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수시대의 역사도 짧고 장수에 대한 관심과 연구조차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돌입한 이후 2019년에 초스피드로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그리고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비로소 장수에 대한 인식에 눈을 뜨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수지표로서는 평균수명이라는 훌륭한 지표가 있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일본의 마쓰사키 교수가 제시한 간단한 장수지표가 있다. 65세 이상에서 차지하는 90세 이상에서 차지하는 90세 이상의 비율(1,000명)이다. 이 지표를 마쓰사키 교수는 초장수율이라 부르고 있다(미야기 시게지, 1997).

한편 일본 동북대학 의학부 近藤正二 교수는 일찍이 총 인구에 차지하는 70세 이상의 비율을 장수자율이라고 일컫고 이 지표를 사용해서 일본 각지의 '장수촌'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표는 일본인 평균수명이 80세인 오늘에서는 이미 장수지표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면 매우 드문 일이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젊은 인구가 극단적으로 적고 분모의 인구가 고령자에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70세 이상의 비율이 높더라도 그다지 의미가 없다. 고도 경제성장 시대 이후로는 이 지표는 단순히 과소하의 지

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까지 말하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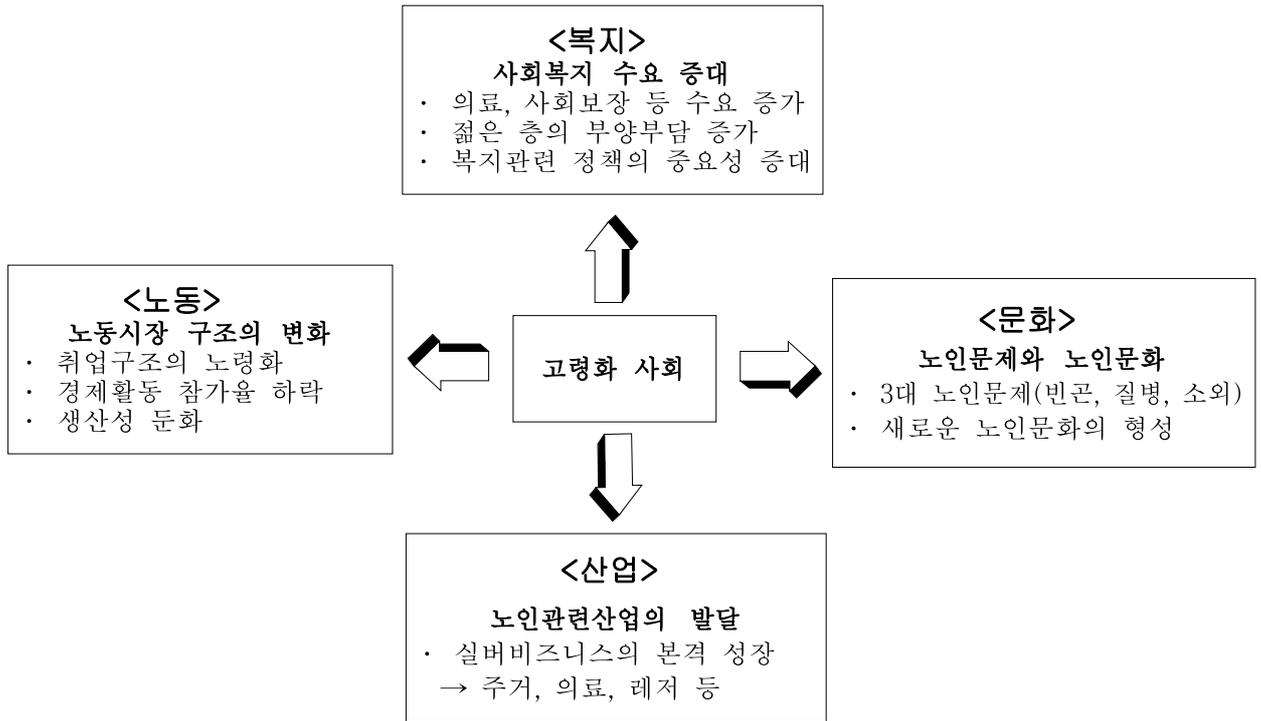
그래서 90세 장수율로는 인구이동이 적은 65세 이상을 분모로 하고 또 평균수명이 80세를 넘는 오늘에는 90세 이상을 장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여 분자를 90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이 지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 몇 명의 장수자가 있을까” 라는 것을 가리키는 지표이다. 게다가 산출법은 간단하고 매우 간편한 장수지표라고 말할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인은 오래전부터 존경의 대상이었다. 노인을 서양에서는 ‘선임시민(senior citizen)’, ‘황금연령(golden age)’, 우리들의 존경하는 노인들(our elders)’ 등으로 높여서 호칭하여 왔다.

더욱이 유교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동양에서는 노인을 공경하는 정도가 더 각별하였다. 일본에서는 노령인구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감사를 내포한 ‘고년자(高年者)’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노인을 ‘어르신’ 으로 부르는 등 노인에 대한 공경의 정신이 전통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장수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축하할 일이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즉 장수한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자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수 시대는 바로 고령사회화 되어간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라 함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부담의 증가와 경제성장률의 둔화 그리고 노인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질감 등이 대표적 예이다.

<그림 1> 고령화 사회의 일반적 특징: 기회와 위협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02

2. 장수의 지역경제적 의미

1) 위협적 요인

가.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비용 증가

장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고조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사회부담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측면에서도 별다른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사회부담은 결국 국민의 세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엄청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고충으로 노인복지에 대

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제인력 한 명당 노인부양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예를 보면 1970년에는 25~64세 이하의 인력 12명이 노인 한 명의 부양을 부담했는데 2000년에는 7.6명으로 부담이 훨씬 커졌다. 향후 2010년에는 5.5명, 2020년에는 3.9명, 2030년에는 2.4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여기에는 노인당 소요되는 의료비의 증가와 건강보험과 연금체계에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이며, 각종 노인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이 확충 문제 등이 있다.

나. 장기적인 요양시설의 부족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향상되면서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재가노인 중에서 장기요양 보호대상은 약 18%인 63만 5,000명이며 장기요양 보호대상은 전체 시설업소 노인인구의 60.7%인 6,0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의존적인 신체장애 노인이 약 39만 명으로 전체 재가노인의 11.6%이다. 그리고 외출하기 일상생활용품 사기 등에서 의존적인 허약 노인이 24만 2,000명으로 전체 재가노인의 7.3%로 추정되고 있다(선우덕, 2002). 또한 장기요양 보호대상자 인구는 99,000명, 2010년에는 200,000만명, 2015년에는 343,000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인요양을 위한 시설여건은 극히 취약한 형편에 있다. 2001년 현재 135개 시설에 수용 가능한 노인 수는 약 10,000명으로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약 0.3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OECD 4~7%에 비해 10~20분의 1 수준이며 요양시설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선우덕)

다. 경제성장률 둔화

노인인구의 비중의 증가는 전체적인 취업구조가 노령화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고비로 감

소세로 전환하고 50~64세의 고연령층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15~24세의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층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높은 집단은 고령화가 낮은 집단에 비해 동일한 조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력의 증대에 따라 기술축적이나 전문성 함양의 큰 특수한 직종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취업구조의 고령화는 곧 비용상승을 의미한다.

한 나라의 인구는 크게 경제활동 참가인구와 비경제활동 참가인구로 구분하며, 경제활동 참가인구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취업자와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실업자로 구성된다.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이란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 참가인구의 비중을 말한다.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64.3%를 정점으로 2030년 62.6%로 떨어지고, 출산율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도 2030년 이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KDI, 2002). 이러한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수의 하락은 급격한 생산성의 증가가 없다면 결국 경제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표 1 >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기회와 위협

연도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수(천명)	경제성장률(%)
1985	56.6	14,970	6.5
1990	60.0	18,085	9.0
1995	61.9	20,432	8.9
2000	60.7	21,877	8.8
2005	63.5	23,643	6.2
2010	64.3	24,836	5.2
2020	64.1	26,311	3.2
2030	62.6	26,189	1.7

주: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수 외에 다른 조건들은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비전 2011」, 2002

일반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등에 대해서도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생산성이 둔화되는 현상에 있다. 특히 제주도는 농촌인구의 대부분이 노인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멀지 않아 이 불균형은 농촌의 미래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갖게 될 것이다. 그나마 지금은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지만 더 노령화되면 농촌의 노동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 노인 일자리 부족

노인들의 평균수명 증가와 건강상태 호전으로 노인들 가운데 병약해서 일할 수 없는 노인들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노인복지시설의 신세를 지는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5% 미만이며, 대부분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퇴한 후 30~40년 기간을 노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 양로시설, 이성교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고령인구의 수가 늘어나고 경제활동 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일자리의 증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령자 고용률이 2001년 3.03%를 기록 2000년의 3.44%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대기업일수록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들의 취업도 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주로 비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젊은 계층이 주로 제조업과는 달리 노령계층은 농림어업, 도소매, 공공·개인·사회 서비스업종의 순으로 취업되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평균 고령자 기준 고용률이 제조업 1.3%, 건설 3.6%, 사회·개인서비스 9.8%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산업별 노령인구 취업현황

(단위: 천원)

구분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수리업	음식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 기타
55~59세	357	166	88	191	100	115	222
60~65세	442	83	48	148	40	87	144
65세 이상	574	61	21	123	27	48	93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2000」, 2001

제주도의 경우 산업구성과 규모면에서 노인들의 취업을 향상시켜 주는 데는 다른 지역보다 더욱 취약하다. 현재는 주로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지만 점점 고학력 노령자가 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에 걸맞는 산업이 발달해야 하는데 지리적 여건상 이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2) 기회적 요인

가. 장수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발전을 바라는 것은 그 지역 모든 주민들의 소망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을 개방하고 모이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면서 다양성과 다면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한 기업이 많은 상품의 브랜드를 보유하려고 하듯 마찬가지로 지역도 많은 명소와 명품 그리고 자랑거리를 브랜드화 하려고 한다.

장수지역으로서의 이름을 얻는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같이 한다. 이를테면 오키나와는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 제일의 장수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장수하면 오키나와를 연상할 정도의 유명세를 타고 있다. 장수연구에 관련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장수학자들이나 관련 의학자들이 분야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과 식사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세계의 이목을 받게 됨과 동시에 장수하고 싶은 사람들

이 '한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장수인구 비율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전국 16개 시·도별 노인현황 비교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8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 참조). 2000년 말 현재 80세 이상 고령 노인은 19.2%(8,313명)로 뒤를 쫓고 있는 강원(16.9%), 광주(16.4%), 경북(18.1%)보다 훨씬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 주요 시·도별 노인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인구(A)	65세 이상 인구(B)		80세 이상 인구(C)		85세 이상 인구(D)	
		인원수	B/A(%)	인원수	C/B(%)	인원수	D/B(%)
전국계	47,732,558	3,355,614	7.03	507,296	15.12	190,209	5.67
제주	542,368	43,334	7.99	8,313	19.18	3,849	8.88
서울	10,311,314	558,566	5.42	87,157	15.60	33,018	5.91
부산	3,796,506	229,075	6.03	28,544	12.46	10,429	4.55
광주	1,371,909	77,325	5.64	12,659	16.37	5,044	6.52
강원	1,554,688	143,945	9.26	24,289	16.87	8,859	6.15
충북	1,497,513	136,160	9.09	21,374	15.70	8,016	5.89
충남	1,921,604	215,059	11.19	32,684	15.20	12,393	5.76
전북	1,999,255	205,807	10.29	32,171	15.63	12,116	5.89
전남	2,130,614	254,370	11.94	39,553	15.55	15,677	6.16
경북	2,797,178	300,614	10.75	48,355	16.09	17,443	5.80

자료: 제주도, '2002 제주장수지역 이미지 극복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인용 재작성

이상에서 본다면 제주도가 장수지역으로서 공인 받고 또 지역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만도 하다.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축적해온 '관광휴양지'와 '평화의 섬', 그리고 깨끗한 '청정성과 연계하여 잘만 활용한다면 지역이미지를 축적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나. 실버산업의 활성화 기대

장수 요인에 의한 고령화사회의 도래는 국가적으로 많은 위협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나 '장수의 섬'을 활용하려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

갈 수 있다고 본다. 그 중의 하나가 실버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실버산업이란 고령층의 정신적·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해서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일컫는다. 실버산업은 수익자부담의 영리원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과는 구분된다. 결국 실버산업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실버산업은 분류기관에 따라 다양하나 잠재시장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면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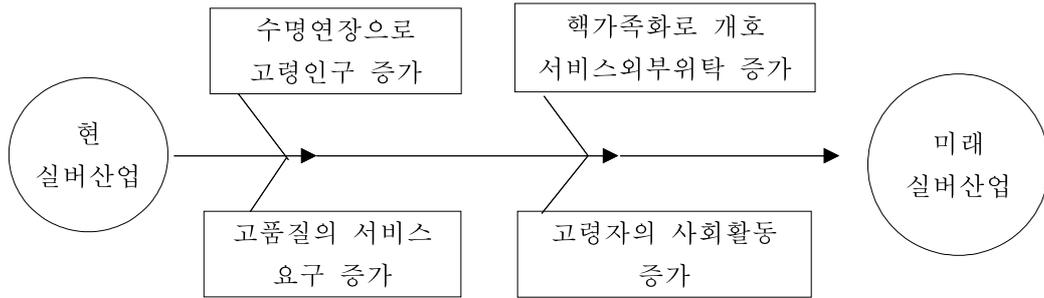
<표 4> 실버산업의 분야와 내용

구 분	내 용
장기요양 서비스	홈헬프, Short-Stay, Day-Service, 유료노인홈, 주택개조, 방문간호, 노인보건시설, 복지용구의, 임대, 재택호스피스
위험방지/안전시설	보행보조기구, 공공시설내 장애인용 시설, 고령자 위험방지 주택, 자동차, 가전, 아이디어상품
의료/건강	고령자 진료소, 장기요양/의료, 정보제공서비스, 건강식품, 스포츠클럽 고령자건강 카운슬링
여가/오락	음악/영화/게임, 여행/취미/오락, 고령자 음식점, 애완동물관련 서비스, 자서전 집필대행비즈니스
생활	금융서비스, 민간보험, 이주지원서비스, 인터넷통판, 노인촌, 노인 의복, 식사택배서비스, 장의서비스, 묘지비즈니스
정보/학습	문화정보시장, 노인대학, 자격비즈니스, 서적/잡지, 컴퓨터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2002,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인구의 증가율을 보여 국내 실버비즈니스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급속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8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의 증가로 요양보호를 요하는 노인이 증가하여 의료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의 실버비즈니스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림 2> 실버비즈니스의 급성장 요인



자료: 삼성연구소, 2002

Ⅲ. 장수이미지의 지역적 활용 과제

1. '장수제주' 이미지 구축

제주도는 전국에서 장수노인 비율이 가장 높다. 말 그대로 장수지역이라는 또 하나의 지역이미지를 얻게 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한다. 때문에 장수에 대한 관심은 욕심이 아니라 본능이다.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장수에 대한 책이 많이 팔리고 장수로 가는 음식과 건강식품을 찾는 현상은 유별난 점도 없지 않으나 그것을 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장수는 바로 건강에서 부터 시작이 되고 그 건강유지는 자기관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장수라는 이면에는 노인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인생과정이 숨어있다. 다시 말하면 장수지역이라는 유명세 뒤에는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와 연관이 된다. 사람들은 피치 못하게 노인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대부분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혹은 정작 노인이면서도 다른 노인들과 같이 취급당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그만큼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주름진 얼굴을 추하게 여기는 '노인'에 대한

선입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장수'라는 용어에 비하여 '노인'과 '고령화'라는 용어에 대한 수용심리는 상당한 거부감이 숨어있음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주 지역이 '장수의 섬'으로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장수이미지'를 연상시켜야지 '노인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역이미지'가 생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다.

장수라는 이미지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구성원이 모두 합심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장수의 섬'은 일개 회사의 브랜드가 아니라 지역을 대표해야하는 지역브랜드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예산을 들여 홍보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노인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장수이미지를 활용하는 데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일본은 전체 인구의 18.25%(2002년 기준)가 65세 이상인 실버 국가다. 10년 뒤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65세를 넘을 전망이다. 지난 70년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 사회(Aged Society)'를 대비해 노화·노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구소를 일찌감치 발족시켰다. 도쿄(東京) 아타바시(板橋)에 자리 잡은 도쿄도 노인종합연구소는 30년 넘게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한 비법을 연구하고 있다.

제주도가 '장수제주'라는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첫째,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을 기초로 '장수환경'에 대한 신뢰성을 심어주어야 한다. 장수이미지를 상품화하여 지역경제를 올리려면 어차피 소비자들의 심리에 반항을 일으킬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다. 제주도가 청정지역임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이미 진부해졌으며,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에도 역부족이다. 따라서 장수이미지와 청정지역을 묶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에서부터 식수, 해산물, 농축산물에 대한 장수와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통음식에 대한 영양과 건강에 대한 식품영양학적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냥 막연히 청정제주라는 구호만으로는 장수지

역의 대표성을 유지하기에는 무리다.

둘째, 제주도의 장수노인들은 와상노인이 아닌 건강노인이라는 점을 내세워야 한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제주노인들은 보기에 아름답다. 예로부터 그러한 독립심이 오늘날 장수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의학적으로도 환경과 음식 등이 장수를 하는데 근거를 이루지만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 등이 장수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제주도의 가족문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의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농촌마을이 공동화될 날도 얼마나 남았는지도 걱정스럽다. 노인이 자연을 떠나 그 일터를 떠나 과연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장수지역의 이름값을 하자면 노인들이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지금 농촌의 노인들이 그나마 자유스러운 것은 밭에서 일을 하더라도 누구의 눈치를 받지 않고 살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제주도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다른 주요 이미지와 적절한 관계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제주도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 이미지들은 장수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지는 것들이다. ‘관광제주’와 그리고 ‘평화의 섬’은 제주의 고유 브랜드로 성장 중에 있다. 거기에다 이제 ‘장수제주’라는 브랜드를 하나 더 얹게 되었다. 그러나 브랜드가 많아질수록 그에 대한 관리가 더 어려운 법이며 잘못하면 다른 브랜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제는 지역브랜드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인 조직과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표 5> ‘장수의 섬’ 이미지 구축 과제

항 목	내 용	구축 과제
장수환경 부각	장수와 청정환경과의 상관관계 조사	토양을 비롯한 자연환경, 농수축산물, 주식 등 장수요인의 과학적 근거 제시
건강한 장수인	와상노인이 아닌 건강한 장수인 상 보여주기	장수인에 대한 특별관리 및 복지지원
타 브랜드와의 관계정립	관광제주(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과 연계 또는 통합	브랜드포트폴리오의 역할 설정 및 브랜드아키텍처 구성

2.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

2000년 농어업 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980년까지 29.7살이던 농가인구의 평균연령은 2000년 들어서 45.7살로 경충 뛰어올랐다. 같은 해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이 33.1살에 비하면 매우 높은 연령이라 볼 수 있다. 농가경영주, 즉 가장의 평균연령도 80년의 47.8살에서 2000년에는 58.7살로 늘어났다. 전체 농가 가운데 가장이 60살 이상인 가구는 지난 95년에는 42.3%였지만 2000년에는 51.0%가 되었으며, 65살 이상인 가구도 전체의 32.7%로 나타났다.

젊은이와 어린이가 사라지면서 농가의 평균 가구원수도 1980년의 5.02명에서 2000년에는 2.91명으로 줄었다. 지난 1990년 29.4%였던 2인 이하 가구는 2000년 들어서 51.8%로 늘었으며 홀로 사는 그 대부분이 60살 이상의 노인들이다. 농촌의 인구구조 형태를 인구 피라미드 형태로 보면 아래와 중간이 가늘고, 위가 기형적으로 비대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정한 형태라 할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이러한 농어촌지역 노인인구의 상대적, 절대적 수의 증가는 노인 개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형태와 성격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인 노인 문제는 물론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문제까지 부가되어 농촌 노인문제는 특히 더 심각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농사일을 계승해 나갈 후계자가 없어서 고령이 되어서도 농사일을 계속해야 하고,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취사, 청소, 가계관리 등의 기본적인 생활상의 문제도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농촌인구의 격감에 대한 문제는 자못 심각하다. 같은 도내에서도 제주시의 유입인구는 증가하는데 반해 다른 지역의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인구 지키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으나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힘들고 소득이 낮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의 이동은 멀지 않아 농촌이 공동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만든다. 무엇보다 제주도의 장수노인들은 농촌에서 소박하고 부지런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국

내적으로도 100세 이상 장수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도 전남이나 전북 등 농어촌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장수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도 일본의 오키나와와 프랑스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남해안 지방으로 니스, 칸느, 마르세이유 등을 망라한 바닷가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환경적인 면과 장수의 관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그런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산업구조가 짜여져야 하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1차 산업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이 폐쇄화되면 우선 거기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도 감소되거나 사라지고, 그 터전에서 나온 생산물로 주식을 해결하던 주민들의 수명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흔히 얘기하는 신토불이(身土不二)가 그것이다.

농어촌의 폐쇄화는 장수문제만이 아닌 관광지로서도, 평화의 섬으로서도, 더욱이 청정지역으로서도 크나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물론 농어촌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제주도 같은 경우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관광산업 등에서 목적세(예; 관광세)를 부과한다든가 복권사업을 통하여 농어촌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해 나간다면 마을도 살고 지역도 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농어촌은 농축산물이나 어산물을 생산하는 역할에 그치는 곳만이 아니다. 그 곳은 말이 필요 없는 교육의 장소이고 도시의 때를 벗겨주는 인간회복의 장소이자 재충전의 장소이다. 선진국들이 농어촌을 포기하지 않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 경제활동인구의 노동력 확장

노인들에게도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기본적인 생활과 최소한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일정량의 연금을 받기도 하겠지만 모든 노인들이 그렇지는 못하며 설사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을 하는 즐거움과 그로 인한 자신감은 수면연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적인 일이 되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통한 근로소득

증대가 필요하다. 사회환경의 변화 및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인인구 절대규모의 증가와 함께 비교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노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년)에 의하면 2001년 말 현재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57.5%가 독립생활이 가능하여 근로능력이 있으나, 이 중에서 28.4%만이 실제로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의 의식도 가족의존에서 근로기의 노후생활 준비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의존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6> 노후생활비 조달의식의 국제 비교: 의미와 대책

소득원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95
자립형(근로기 준비)	40.3	41.9	55.0	46.6	24.7	41.2	60.7	45.2	32.2
가족의존형	49.4	28.2	18.8	12.8	61.4	41.9	0.6	6.0	3.8
사회보장의존형	8.2	29.2	21.8	37.7	10.6	16.1	29.1	45.6	59.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춰 '장수의 섬'을 표방하려고 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소득보장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개인의 노후 소득보장 욕구 및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고용촉진 정책 등이 지역차원에서도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이다.

노인들의 고용촉진은 중앙정부 측면에서 전반적인 정책 추진이 있어야 하겠지만 지역차원에서 먼저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산업구조적인 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및 취업알선체계를 위한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일정비율의 고령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및 지방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따른다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4.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노인의 위상 강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급속한 노령화를 경험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 사회는 노인복지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령화에 따른 고령화 부담을 민감하게 받는 분야가, 보건부분으로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건강실태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88% 이상의 노인들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더욱이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의식이 약해지면서 만성질환 노인들의 간호 및 요양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절대적 수 및 규모의 증가가 최우선 과제이므로 지역에 서도 자구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은 일본의 3.5%(수용인원 기준)에 불과하며, 이를 인구대비로 환산할 경우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고령자 중에서 가정이 아닌 외부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비중은 미국과 일본이 각각 20%, 일본이 4%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0.3%에 그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고령화시대 도래의 의미와 대책).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설들을 계획할 때 '격리'가 아닌 '교류'형으로 설계하고 운용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노인복지시설을 도시외곽이나 시골지역만이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교류'를 중점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것도 참고할만 하다. 그리고 시설운용프로그램도 단순한 주거 및 일상생활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적 활동, 창의적 여가 선용, 사회적 교류 등을 중시하는 쪽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시권을 중심으로 각 시·군에 적절하게 미국에서 운영하는 노인촌락(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을 구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노인촌락은 장기체류노인 거주지역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노인촌락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1900년경 7개에서 1940년대 50개, 1990년대 초 60개로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독립생활시설, 간호보호시설, 전문요양시설, 통합형 연속 장기보호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미국 노인촌락의 경우 3분의 1은 대도시 3분

의 1은 대도시 외곽지역, 3분의 1은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투자조달은 지방정부와 민간의 합작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한다. 지방정부와 민간이 일정 비율로 공동의 재원을 형성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을 통해 안정적 투자기반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다.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과 노인전문병원, 양로원, 가정의료소 등의 확충은 투자규모가 크므로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노인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여러 노인단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상호 긴밀한 연계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노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회봉사 프로그램, 생산적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개발하여 현실적으로 가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전략적 방안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은 당당한 노인의 위상이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사회가 필요한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경륜이나 지식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노인의 모습이 당당하게 늙는 방안의 목표가 될 것이다.

노인들의 위상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수 있는 아량, 가지고 있는 것은 나누어 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여유와 용기를 가지는 일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장수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에 따른 적절한 사회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은 늙어간다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인생의 한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당당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사회적으로도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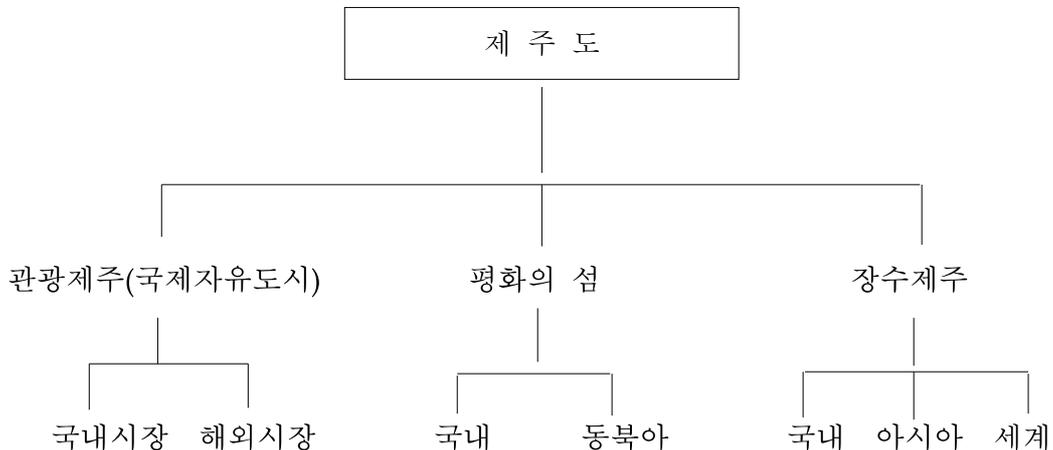
IV. 장수브랜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1. '장수제주' 브랜드화

과연 제주도가 '장수의 섬'이라는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을까? 현재 제주도가 내걸고 있는 지역브랜드로는 '관광제주'와 '평화의 섬'이다. 국제적인 관광목적지라기엔 아직 자신이 없지만 국내 최대의 '관광휴양지'라는 브랜드는 자존심을 걸 수가 있다. 동북아 '평화의 섬'이라는 브랜드는 정치적·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시작이 되었지만 최근 지역주민들의 여망으로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장수의 섬' 브랜드는 또 하나의 실험적인 지역브랜드 작업의 시작인 셈이다.

여기서 문제는 기존의 브랜드인 관광휴양지와 평화의 섬이 확고한 입지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관광휴양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맞물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고, 평화의 섬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걸려야 하며 아직은 인지도면에서도 미흡한 실정이다. 다시 장수의 섬이라는 브랜드를 추가하자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위한 아키텍처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3> 제주도 브랜드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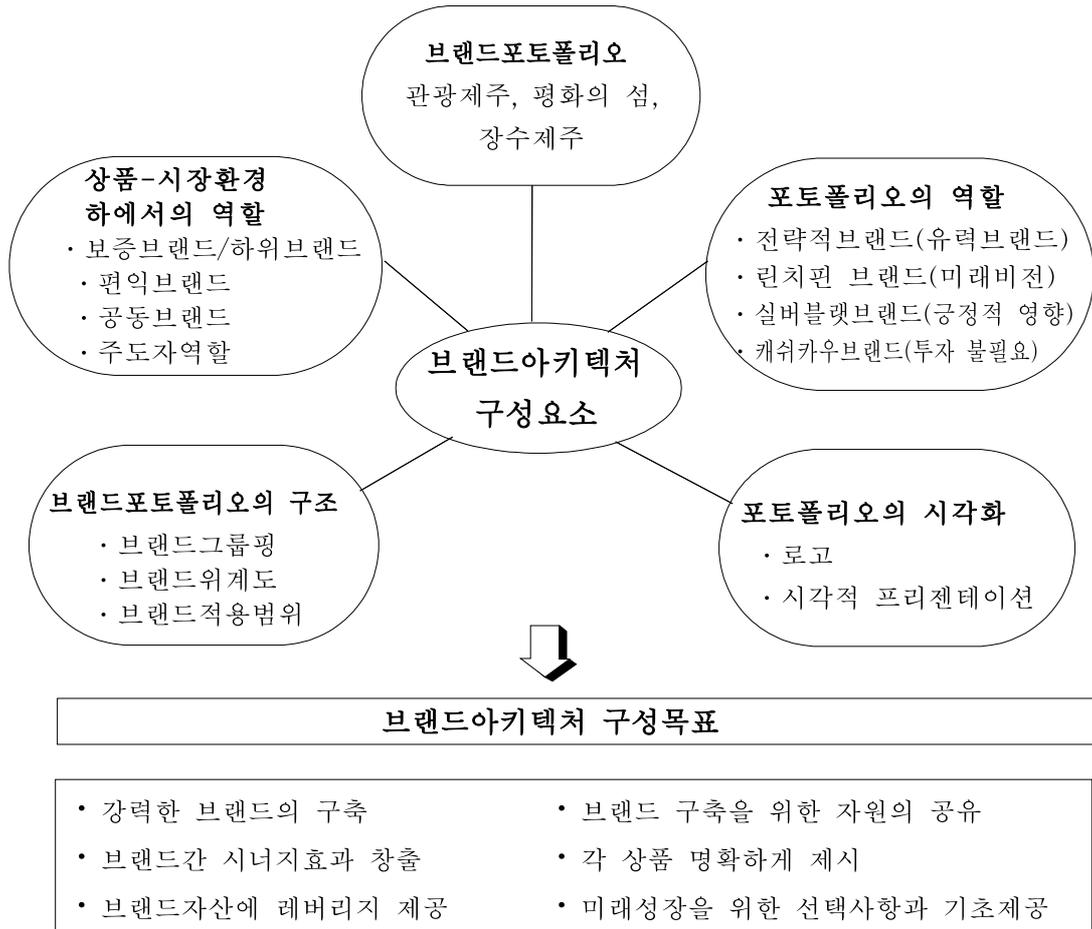


지역을 연상시킬 수 있는 고유브랜드를 창출하고 구축하는 길은 쉽지 않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어쩌면 '관광제주'다 '국제자유도시'다 혹은 '평화의 섬'이다라고 하는 나열된 이미지는 오히려 제주도가 강력한 브랜드포지셔닝을 가져오는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며,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제주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제주', '평화의 섬' 그리고 '장수제주'에 대한 대외적 성과를 거두려면 멀티브랜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브랜드아키텍처가 구축되어야 한다.

브랜드 아키텍처는 브랜드들 간에 그리고 서로 다른 제품-시장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관계의 본질과 브랜드 역할들을 구체화시킴으로써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조직하고 구축한다. 효과적이고 잘 구성된 브랜드아키텍처는 고객들에게 '장수제주' 브랜드가 제공할 가치를 분명히 전달하고 브랜드와 브랜드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진정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며, 브랜드자산을 상승시킬 능력을 제공한다.

효과적으로 브랜드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한 주요 단서는 기존 브랜드인 '관광제주'와 '평화의 섬'을 어떻게 확장시켜야 하는지, 신규브랜드인 '장수제주'를 언제 도입해야 하는지, 보증된 브랜드는 어떤 시점에서 적용하고 또 하위브랜드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림 4> 제주도 브랜드 아키텍처



제주장수의 브랜드 성공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직접적인 지역경제적 효과는 물론 간접적으로 얻는 이득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미 청정지역으로 이름이 나있는 제주도가 장수이미지를 결들인다면 그 효과의 증대성은 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장수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그에 따른 목적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으며, 장수와 관련된 자연환경, 농수축산물, 전통음식과 특산물에 장수브랜드화 할 수 있다. 즉 브랜드 효과로 인하여 생산자와 업자는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고 지역은 브랜드사용에 대한 일정량의 수수료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평화의 섬' 개별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2. 장수이미지 관광자원화

관광자원의 종류는 실로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 수려한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그리고 생활문화 등 지역의 다종다양한 삶이 모두 유망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자연이나 문화는 엇비슷한 형태나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상품을 연출하지 못한다면 시작이 좋더라도 수명이 길지 못하게 된다.

장수제주를 표방할 수 있는 경쟁 장수지역 역시 국내에서도 몇 군데가 있다. 전남지역과 전북지역은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제주도가 다른 장수지역과 차별화하여 장수촌을 만들어 관광자원화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장수자원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다른 지역에 앞서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지는 좋은 시설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자원과 시설을 적절히 활용하여 관광지 나름대로의 멋을 내는 '상품 연출'이 필요하다. 관광소재를 발굴하여 이를 상품화하자면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메시지 전달과정이 짜여져야 한다. 그러므로 장수촌의 관광자원화는 도내 장수마을 한두 군데를 선정하여 관광코스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유념해야 할 점은 상품 자체가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목표시장(Target Market)이 있어야지 이것저것 끼워 구색을 맞추려고 한다면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일본 오키나와는 명실 공히 세계 제일의 장수지역이다. 1995년 8월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에서 태평양전쟁, 오키나와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빛나는 생명 오키나와로부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계장수지역선언'이 개최되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과 세계 저명한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키나와지역 장수를 검증하고, 오키나와 지역이 세계의 대표적인 장수지역이라고 선언하였다(平良一彦, 2002).

제주도는 오키나와와 비슷한 점이 많다. 두 곳 다 본토와 멀리 떨어진 섬이며 장수노인 중 여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들이 먹는 주식도 돼지고기와 해조류 등

이고 특히 돼지고기는 삶아서 먹는다고 한다. 그들의 건강식품으로는 두부, 된장, 양배추, 김, 양파, 콩나물, 고구마 등인 것도 비슷하다. 우리가 다른 지방 두부와 다른 뚝배기를 먹었듯이 그들도 본토와 다른 두부를 먹고 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세계 대표적 장수지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대학 또는 연구소마다 장수와 연관된 식사, 전통 및 습관, 가족관계 등을 연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제주도가 장수마을을 상품화하려면 장수와 연관된 여러 분야와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관광상품은 처음부터 욕심을 내어 단시간 내에 직접효과를 보려는 욕심을 떠나 지역이미지 및 관련생산물과 상품들이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장수마을 설정 및 관광지화

시범적으로 장수마을을 한두 군데 선정하여 마을환경을 정비한 후 마을 사람들의 장수내력과 장수인들의 실제 식사메뉴와 생활습관 등 일상생활을 촬영하여 관광객들에게 관람하도록 한다, 물론 관람 후 실제 생활모습을 보여주는데 안내와 설명은 동네 노인이 직접 하도록 한다. 특히 일상식단은 모형화하여 진열함으로써 볼거리를 마련하는 등 관람객의 흥미를 돋워야 한다.

마을 자체 공동수입을 위하여 장수식단을 체험할 수 있는 먹거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말에는 농수축산물과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설재래시장을 운영하도록 한다.

2) 관광코스 연계화

장수촌이 최소한 독자적인 관광지로 명색을 갖추려면 그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다른 관광지와 연계코스를 잘 짜야 한다. 장수촌이라고 나이 많은 중년층 이상만 의식해서는 안되며 가족관광객이 한번쯤 꼭 둘러보는 자체적인 유인력 창출과 다른 관광지와 연계하여 상승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관광상품을 구성할 때 장수관련 위주 상품과 일반상품과 혼합한 두 종류를 대

별하여 코스화해야 관광객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행을 통한 코스개발의 협조와 공동마케팅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장수이벤트 및 축제

장수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장수와 관련된 이벤트를 수시 연출한다. 전국에 있는 건강한 장수노인들을 초청하여 '사투리대회' 또는 '장수노인 걷기대회', '장수코리아'를 연출한다. 또는 정기적인 행사로서는 제주 청정이미지와 평화의 섬 이미지를 연결시킨 '제주장수축제'를 기획하여 지역특산물 판매를 제고시킨다.

3. 장수실버산업 육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은 우리나라 실버비즈니스 시장규모는 2000년 17조원에서 2005년에는 약 27조원, 2010년에는 약 41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는 2000년 기준 3조원, 위험·안전시설이 3조원, 의료·건강이 4조원, 여가·오락이 2조원, 생활이 5조원, 정보학습이 1조원으로 각각 추정하였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에서 이미 실버산업의 수요가 확대일로에 있으며 일본만 하더라도 실버산업 시장규모는 2000년에 38조엔을 돌파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후 실버산업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주도하였으나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유는 미래유망사업이라는 점 하나만을 믿고 실버산업에 뛰어들었으나 사회보장제도의 미흡과 사회적·제도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식에게 의존하던 1세대 노인들이 물러나고 부부위주의 노후대비를 준비하는 2세대 노인들이 들어서면서 정부는 뒤늦게 법제도적인 정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버산업 촉진을 위한 내부적인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제주도는 국내에서도 실버산업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처음에는 휴양관광지로서의 메리트를 높이고 장기체류관광객을 흡수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시발점은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예래동 실버휴양주거단지를 계획하면서 부터이다.

제주도가 장수이미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실버산업 육성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자면 실버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현재 제주도의 노령인구로서는 실버산업을 부양시키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예래동 실버타운 등 대형 프로젝트가 리딩사업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실버산업의 유형을 선별하여 제주도 실정에 맞는 사업무문을 중심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한다. 가장 시급한 부문은 주거관련분야와 의료관련분야이므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균형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정책화 하여야 한다.

<표 7 > 실버산업 발굴 육성 부문

분 야	부 문	발 굴 육 성 사 업
주 거	- 주거시설 - 재가서비스	· 실버타운, 노인가파트, 유료양로원, 케어맨션 · 수발서비스, 급식서비스, 복지기기
의 료	- 병원 - 의료정보 - 인력파견	· 노인전문병원, 노인건강센터, 각종 치유병원 · 병원관리, 의학정보, 장수연구센터 · 의료요원, 파견, 알선
여가활동	- 사회활동 - 여가활용	· 노인취업, 고령자 재교육 · 실버여행사, 스포츠, 오락
교 육	- 취미 - 오락 - 종교 - 교육	· 노래교실, 원예, 민속놀이 등 · 유희시설, 야외공연장, 관광농원 등 · 종교교실 · 노인대학, 문화강좌, 다목적 회관 등
생 활	- 의류 - 식품 - 생활용품	· 일상복, 정장복, 환자복 · 건강식품, 기호식품, 식사 및 부식의 가정배달 · 가전제품, 일상용품
금 용	- 연금 - 보험 - 자산관리	· 공적연금, 사적연금 · 케어보험, 연금형보험 · 신탁, 부동산관리

4. 평화의 섬 이미지와 연계 홍보

인류와 자연간의 조화는 곧 인류사이의 평화의 토양이 되며, 그것은 바로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제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야무수크로 선언'은 말하고 있다.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이 단순히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는 점에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보존은 그 자체가 바로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의 태도는 바로 평화문화의 바탕이 된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곧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소유하고 있는 자연환경은 가장 소중한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그 자연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주어진 천수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평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가는데 도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이미지를 설정하는데 지역적 또는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찾아 내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제주도가 평화의 섬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그 규모에 걸맞는 이념적인 편린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역사적 의미와 지정학적 의미 그리고 자연환경적 의미, 문화적 의미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장수문화를 문화적 의미에 연결을 시키는 것도 '제주장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кина와가 평화의 섬을 주창하면서 장수지역의 대표성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측면을 눈여겨 본다면 제주도는 우선 국내적으로 만이라도 이러한 동반효과를 얻을 수 있는 조사와 연구 그리고 실제로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주도는 두 개의 상징적인 보물이 있다. 그것은 현재까지 제주 최고의 상징물로 각인이 되고 있는 '돌하르방'이며 또 하나는 제주설화 중 으뜸으로 치고 있고 각종 행사에서 상징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설문대할망'이 그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상징적 보물들은 낱말 자체부터 하르방과 할망이라는 장수이미지를 담고 있다. 계

다가 돌하르방은 마을 앞에 서서 해학적인 얼굴형태로 사람들을 환대하는 모습이고 설문대할망은 500명의 아들들에게 자기의 육신을 희생하는 제주여인의 자식사랑을 담고 있다. 이것들이 모두 평화의 모습이자 정신이며 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수이미지를 평화와 연계시키는 작업은 좀더 전문가들의 견해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장수라는 이미지를 하나만 놓고 상품화한다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높지가 않다, 다만 그것은 현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브랜드와 상관관계를 적절하게 연계시키거나 조합시키려는 창의적 대안들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V. 결 론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지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관광산업도 예전 같지가 않고 제주도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산업도 파산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또 국제자유도시를 주창하며 기대를 걸었는데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뚜렷한 민자·외자유치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장수지역이라는 특성을 제주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유인요소로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사람들을 흡인시키는 역할을 기대함인데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일이다. 사람들은 어떤 지역매력요소를 활용할 때 단기간 내에 직접효과를 거두려는 욕심을 부리게 된다. 그러나 장수지역의 이미지를 통하여 당장 얻을 수 있는 효익은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다. 다만 장수지역의 이미지를 현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미지 브랜드와 어떻게 연계 또는 조합하느냐에 따라 장기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경제 효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수지역이미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제고시키는 데는 첫째, '장수제주'에 대한 대외적 성과를 거두려면 '관광제주(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등 기존브랜드들과 함께 멀티브랜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브랜드아키텍처가 구축

되어야 한다.

둘째, 제주도가 장수촌을 상품화하려면 장수마을을 선정하여 관광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최소한 독자적인 관광지로 명색을 갖추려면 초반부터 그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다른 관광지와 연계코스를 잘 짜야 한다. 무엇보다 여행사와 협력관계가 관건이며, 또한 제주 청정이미지와 평화의 섬 이미지를 연결시킨 '제주장수 축제'를 기획하여 지역특산물 판매를 제고 시킨다

셋째, 실버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타지역 실버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현재 제주도의 노령인구로서는 실버산업을 부양시키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래동 실버타운 등 대형 프로젝트가 리딩사업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장수라는 이미지를 하나만 놓고 상품화한다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브랜드와 상관관계를 적절하게 연계시키거나 조합시키려는 창의적 대안들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수제주'라는 또 하나의 지역브랜드를 만들어 내자면 장수지역으로서의 기본적 이미지 구축과 장수원천이 되는 농촌 살리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고령자 취업을 위해 경제활동인구의 노동력 확장이 뒤따라야하며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노인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는 장수제주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에서 요약한 네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선우덕(2002),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실태 및 정책수립 방향', 「보건 복지 포럼」 통권 제 66호,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미야기 시게지: 남은우 역(1997), 일본인의 장수비결
- 平良一彦(2002): 일본백세인의 사회학적 특성과 장수요인. '세계의 장수지역과 제주도', 제주학회
- 노동부(2001), 「노동통계연감 2000」
- 제주도(2002), 제주장수지역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개발연구원(2002), 「비전 200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종합대책 수립방안 연구
- 삼성경제연구소(2002),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 삼성경제연구소(2002),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중 합 토 론

토 론 요 지

장수센터 종합토론

김 석 준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관 점:

- 사회학자의 관점 : 장수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평범한 사람, 장수의 고장이라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의 관점을 포함

2. 왜 장수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하려는가?

1) 일반적인 수준에서

- 장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사회변화에 부응
- 역사적으로 처음 경험하는 인구의 고령화가 가져오는 사회변화
- 사회 내 자원의 재분배는 물론 특히 노동력구성의 변화에 유의

2) 왜 제주도에서인가? - 개별적 특수성의 수준에서

- 장수자의 고장 (그러나 일면적이고 편협한 시각 →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이 요구됨)
- 평화의 섬과 장수 : 이미지의 친화성을 부각시켜야
- 생태적, 환경적으로 양호한 지역 : 건강한 삶, 생활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제주사회의 발전전략과 연관 : 위의 이미지 친화를 바탕으로 산업적 효과도 겨냥해야 함. (현실적으로 아직은 아니지만, 선진국의 사례에서 소비능력이 많은 인구층으로 은퇴노년층 주목)

3. 무엇을 해야 하나?

1) 예시하자면, 이른바 장수건강생활모델의 연구와 개발

- 종래의 영양학적, 보건의료적 한계를 넘어서는 모델의 개발
- 적어도, 보건의료, 사회복지와 가족, 취업과 사회봉사, 교육과 여가라는 네 차원을 포괄하는 모델 (이는 노인문제의 주요 agenda를 포용하는 작업이기도 함.)
- 이 과정에서 장수건강생활지표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함.
- 이 지표는 장수건강생활의 조건과 환경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다수의 장수자와 그들의 만족스런 삶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
- 물론, 지표는 비교의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타지역과의 비교나 다른 장수지역과의 정보교환에도 유용할 것임.

2) 노인복지와 건강을 위한 정보센터로서의 역할도 마다해서는 안됨.

- 연구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를 활용가능하게 가공하여 제공한다.

3) 산업화를 위한 의사소통구조도 수립해야

- 실버산업과의 연관하에 실버산업전문가 육성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센터가 되거나,
-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동등도 가능해야 할 것임. (제주사회의 발전전략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제주형 복지시책을 바라며

김 우 남

(제주도의회 부의장)

□ 제주복지사회의 이상

- 제주가 추구하는 복지사회의 이상은 도민 누구나 평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따뜻한 제주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다.
- 이런 이념 아래 제주의 복지시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으로 외형적인 안정만을 도모해서는 안되고 제주사회의 전통적인 미덕인 ‘인심 좋고 마음이 따뜻한 고장’을 되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우리 지역사회에 불필요하게 쌓인 갈등의 고리를 풀고 불우한 이웃, 소외된 계층을 마음으로 감싸안을 수 있는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주친화적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 소외계층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 현대국가는 사회발전 목표를 국민총생산성 증가에서 국민총복지성, 국민총만족성로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이런 국민총만족성은 경제적 지원이나 직업의 보장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복합적이고 적정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가능하다.
- 이런 추세 속에서 지역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 첫째는 국민의 평균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수요가 반영된 지역친화적 복지시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자치단체, 지방의회, 사회복지기관들이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여러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의 결손 가정과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생계, 주거, 보건, 교육, 고용 등 5대 기본 생활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 또한 제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자활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 균형있는 의료서비스 기반도 확충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염병 예방의 소극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기능을 주민 건강관리라는 적극적 역할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특히 노인분들은 현재의 제주를 있게 한 공헌자이다. 이분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은 후배인 우리의 책임이다. 이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 복지정책의 主流化 선언

- 사회갈등에 대한 치유는 단순한 정책적 배려보다는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가 건전한 시민의식과 민주정신이 함양될 때 가능하다.
- 지금까지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정책의 부속물로 여겨왔다. 앞으로는 모든 정책 가운데 최우선시 하는 복지정책의 주류화 선언이 필요하다.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의 운영 활성화

김 혜 숙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 연구 및 정책개발

· 연 구

장수시대를 맞아 연령별, 소득계층별 노인복지의 재 개념화 필요

young - old / middle - old / old - old

저소득층 노인 / 중·고소득층 노인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인 / 와상노인 등.

→ 장수센타에서는 현재 정부의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모든 소득계층 노인의 다양한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 복 지

현재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실천 / 미래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 실버산업

현재의 50대가 노인 층으로 진입하는 2010년 이후에는 기존의 노인들과는 다른 '신세대 노인' 층이 형성.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신세대 노인들은 노년기에 다양한 욕구. 이들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에서 실버산업의 활성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 한국사회의 노인시장을 재평가해야 함.

실버산업과 함께 노인복지를 공급하는 여러 주체들간 즉 중앙·지방정부와 민

간부문 간의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함.

민간부문 안에서도 시장형의 실버산업부문과 상호부조형 서비스나 유상 자원 봉사형 서비스와 같은 비시장형 복지서비스와의 적절한 역할분담도 과제. 여러 공급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 구실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전체의 복지들이 빈틈없이 짜여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수립과 방향설정이 장수문화연구센터에서 제시되어야 하리라 봄.

□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구자문위원회에 고령자 참여

실버산업 전문인력의 확보문제, 다양한 노인소비자의 욕구를 제대로 읽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주도할 수 있는 실버전문 인재의 양성이 필요. 상품의 고안, 신제품의 시험사용, 상품의 개량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 소비자인 노인 층의 아이디어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

관련 분야에 경험과 능력이 있는 노인인력을 실버시장 접근, 실버상품개발, 홍보활동, 해외정보조사, 시장조사 등의 분야에 활용해야 함.

그런 의미에서 장수문화연구센터에도 활동 가능한 노인인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제언함.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제반내용

오 경 생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설립배경

- 2001년도에 제주장수지역관련 정책개발 필요성 인식
 - 80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19.3%)이 전국에서 제일 높게 나타남
(장수율 : 전국 16개 시·도중 제주도가 1위)
 - 2위(강원 16.84%), 3위(광주 16.73%), 4위(경북 16.46%),
5위(전북 16.14%) 순
 -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연장 추세
 - 1960년 (54.8세) → 80년(65.8세) → 90년(71.6세) → 2020년(80.7세)
→ 2030년(81.5세)
 - 제주장수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장수관련 노인복지정책 개발의 필요성 대두

- 2002. 1. 31~5.30 : '제주장수지역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완료
 - 제주장수노인의 활동수행능력·지리적 환경·가족생활·식생활·노동경험 등 기초자료 구축

- 2002. 5. 17~9. 30 : 실버산업 수요조사 및 모형개발 연구
 - 제주지역실버산업의 수요와 전망
 - 제주지역에 특성화된 실버산업 모형
 - 제주지역 실버산업 활성화 전략

- 2002. 11. 22~11. 23 :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 제주장수의 국제적·학술적 가치 인증
 - '제주장수학'의 정립 필요성 및 장수브랜드 정책 개발 등 제안

<※장수도 (degree of longevity)란?>

○ 80세 이상의 인구를 65세 이상의 인구로 나눈 백분율

- 산식 :
$$\frac{80\text{세 이상 인구수}}{65\text{세 이상 인구수}} \times 100$$

○ 장수도를 이렇게 보는 이유는 어떤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현상에 가정을 둔 것임.

○ 따라서 장수도는 어떤 지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80세 이상까지 생존할 확률로 볼 수 있음

- 출처 : 박상철 2002. 「한국의 백세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13~14

※ 향후과제

○ 1단계 (2003 ~2004) :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운영 , 제주장수의 연구기반구축

○ 2단계 (2005년 이후) : '제주장수문화연구소(독립법인화)'로 전환 제주장수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활동

□ 단기적 과제 - 제주장수이미지 브랜드화

○ 제주지역 장수의 특징과 요인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하여

- 장수지역에 걸맞는 '장수형 제주 노인복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제주장수학' 정립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 장수지역속의 장수촌(마을)선정기준 제시 및 이의 관광자원화 방안 구축
- 제주장수지역 이미지 브랜드 개발
 - 장수하는 토속 음식과 장수식품 발굴
 - (<예> 일본 오키나와 '다시마'와 '돼지고기'가 장수음식으로 브랜드화 됨)
 - 장수에 영향을 주는 농·수·축산물 발굴 및 브랜드화
- 세계 장수마을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세계 4대 장수마을의 장수문화 벤치마킹
(파키스탄 훈자마을, 코가서스의 아브하지마, 중미 에콰도르의 빌카밤마, 일본의 오키나와 등)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과제와 대안 발굴 연구사업 등

□ 장기적 과제 - 제주장수문화의 정립

장수문화에서는 단순한 수명연장 측면의 노력이 아니라 노인들의 삶을 효율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확립하고, 개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는 생활패턴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다 건강한 노후생활과 노인의 사회적 존재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개발하고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장수문화를 정립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노인의 주체가 되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 고령화 사회에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장수문화의 핵심은 노인층을 소비계층이 아닌 생산계층으로, 의존 계층이 아닌 자립계층으로, 피동층이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생산직종 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 아무리 이상적인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게 수용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다.

○ 장수문화를 구체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 노인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사회봉사 프로그램, 생산적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개발하여 현실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 구체적 프로그램에는 노인자신을 위한 의식주, 건강, 취미활동, 기호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인간대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측면의 제도와 관습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끝으로 제주 특유의 장수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o 제주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 일은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독립성
- o 결혼하면 부모와 같은 집에 살더라도 부모와 분명하게 독립된 생활을 하는 관습
- o 부모가 운신을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부양을 하지 않는다는 관습
- o 장자중심의 부모봉양을 하지 않고 형제자매가 공평하게 나누어 부모를 봉양하고, 조상제사도 형제가 나누어서 모시는 전통문화 등

이러한 제주특유의 장수문화는 장자 상속제도로 인한 형제간의 갈등을 불식할 수 있고, 노인층과 젊은 세대간의 일방통행적인 봉사의무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 제주의 고유한 생활관습들이다.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최 연 홍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는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아름다운 섬, 공해가 없는 섬, 사람이 살기 좋은 섬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노인들을 위한 Silver town을 만들어 나가는 현실적인 노인복지 행정을 구축하는 일을 맡게 될 것으로 봅니다.

① 아름다운 섬의 이미지를 위한 제안

제주도가 빠진 한국은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단조롭다. 제주도는 그 만큼 한국을 부유하게 해주는 섬이다. 반도와는 다른 섬의 이미지 안에는 바다라는 환경이 들어있고, 반도로부터 멀리있어서 대륙의 영향을 적게 받은 섬의 문화가 있다. 바람과 돌, 여자의 이미지가 지금까지 제주의 이미지라면 지금부터는 한국을 내어 놓아도 제주도는 내놓을 수 없다는 낭만주의적 아름다운 섬의 이미지가 지배적이어야 한다.

반도로 멀리 떠나 있는 섬이 갖는 고유의 전통, 사상, 몽고와 마지막 싸운 고려인들의 용기,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 서귀포(西歸浦)라는 아름다운 포구가 있을까? 거기 김중섭 화가의 축제가 있다. 서귀포출신의 김광협 시인의 축제도 있을만 하다. 소주, 항주는 당나라의 도시이지만 소주는 풍교야박(風橋夜迫)이란 詩를 남긴 장계로 유명하고 항주는 백거이의 詩로 유명하다.

환경의 극치는 오염물질의 제거로부터 시작해 자연, 역사의 보전이다. 다시 말해 아름다움의 사회건설이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지명이 되기를 바라고 센터가 그 일을 담당해야 한다.

풀 고갱이 타히티로 가서 명화를 남겼듯이 제주도가 김중섭의 미술과 김광협의 문학이 살아 숨쉬도록 문학, 예술의 성지가 되기를 희망한다.

② 노인복지를 위한 Silver town 조성 방안

노인은 한국사회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장수하는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노년을 행복하게 산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정은 그렇지 않다. 노인은 병들어서 가엾다. 의료비는 비싸고, 간병인을 두기도 어렵다. 월 200만원을 지급해야 좋은 간병인을 둘 수 있다. 양노원시설도 보통의 노인들이나 그들의 아들, 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이 되었다.

제주도가 건강한 노인들의 휴양지라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Silver town을 조성하고, 운영하려면 제주도가 제주도에 맞는 규모의 병원시설과 양노원, 노인들이 즐길수 있는 골프코스, 식물원, 산책로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옥하나에 1백명이 들어가 살 수 있는, 1인 1실, 2인 1실, 3인 1실의 방구조를 두고, 그들을 보살필 의료진이 들어서야 한다. 그런 가옥이 열동이 되면 결국 1,000명이 들어가 살 수 있는 Silver town이 될 것이다. 제주도 전체에 그런 Silver town이 열개가 된다면 10,000명의 노인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섬이 될 것이다. 제주도에 그 이상의 시설이 들어선다면 제주도가 자칫 묘지라는 이미지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 상한선을 정해야 할 것이다. 건강한 노인들의 삶의 터전이 제주도의 아름다운 햇살, 감귤, 유채꽃과 함께 정착되기를 바란다. 간병인이 필요한 노인과 그렇지 않는 노인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노인복지를 위한 행정이 반도의 다른 道와 지방정부와 얼마나 다른가부터 차별화해야 한다. 인간이웃의 사랑이 제주도에 있는 사실로부터 노인 복지 행정을 출발해야 한다.

노인을 인간연민의 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간적인 세상이 제주도를 한국의 아름다운 섬으로 뿐 아니라 세계의 섬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 것이다.

슈바이처 같은 의사, 테레사 수녀같은 간호원이 거기 가면 있다는 소문이 세계로 확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의 역할에 대한 조언

현 인 숙

(제주한라대학)

제주지역이 장수지역임은 분명하고,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연구소를 개소하고,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상품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매우 많다고 본다.

제주도 장수지역의 차별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 과연 청청지역이라는 이미지와 현재 전체 노인인구와 80세 이상의 장수 노인이 많다는 점을 내세워서, ‘장수지역’을 경제적으로 상품화하고, 브랜드화 하기에는 취약점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제주도는 섬 지역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이동거리, 장기 체류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양창식 교수의 주제발표 중에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계획이 ‘격리’가 아닌 ‘교류’형으로 설계하고 운용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호주의 경우도 노인복지 시설의 위상은 얼마나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문화활동의 중심지인가?,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한가? 간단한 쇼핑 등 경제적 활동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느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접근 가능한가?, 가족이나 일반 사람들과 얼마나 사회적 교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물론 환경이 노인들이 살기에 얼마나 적합한가 하는 면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특성 등을 고려하고, 한국 노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족과 생활에 대한 일반 정서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서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를 장수지역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제주 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들에 대한 충분한 복지정책이 수립되어 얼핏 보아도 “제주 노인들이 재미있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있구나” 하는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빨리, 상품화해서 팔 것인가를 구상하기보다는, 우리 지역 노인들이 장수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건강, 의료기관 이용 및 건강 행태, 식생활 및 영양, 생활양식, 주거, 가족 관계, 젊었을 때의 생활 패턴 등에 대한 분야별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주도내 노인들에 대한 보건, 복지정책이 선진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이다. 우리 노인들은 그럭저럭 구태의연하게 사는데 외부에서 와서 사는 노인들에 대해 고급화를 추구하여 그들만을 위한 사업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 우리가 선진지역 견학을 가는 것은 그곳에 노인들이 얼마나 ‘잘살고 있는가’를 보러 가는 것이지 외부 사람들을 얼마나 유치해서 돈을 벌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실버산업을 유치하더라도 제주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제주의 차별화를 어디에 둘 것인가?, 유치한다면 노인들 중에서 어떤 층을 겨냥할 것인가?, 장기체류의 측면인가?, 리조트의 개념인가?, 또한 이것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제주에는 노인을 위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어떤 홍보전략으로 노인들과 그 가족들을 유인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숙제는 아니다.

분명한 것은 제주가 장수지역으로 이미지가 구축되기 해서는 우리 제주지역 노인에 대한 우선적 연구, 복지정책의 선행과 외부지역 노인들이 벤치마킹을 왔을 때에도 “제주 노인들을 보면서”, “정말 여기 와서 살고 싶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하며,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일반 아파트와 같은 시설보다는 외형을 초가집과 같이 노인촌을 만들어 노인의 옛 정서를 담으면서도 불편하지 않고, 노인들이 필요한 복합시설과 프로그램이 담긴 제주의 차별화 등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수문화센터 운영활성 활성화 방안(보건의료 측면)

홍 성 철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제주도의 주관심은 4·3 해결과 감귤문제가 주 화두였음. 보건복지는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왔음. 다행히 제주도가 장수문화센터를 설립하여 제주형 복지사회 건설과 장수이미지를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기대가 큼.

제주도의 노인인구 중 80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이는 2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음.

- 1) 높은 부양지수로 인해 제주도의 노인복지정책의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요구되며 시급함.
- 2) 청정 장수지역 이미지를 활용하여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 활용하는 측면이 있음. 양자는 서로 상반된 목표와 수단을 가지고 있음. 즉 전자는 도 재정의 과도한 지출을 의미하며, 후자는 도의 수입을 의미하는 상반된 목표와 수단을 갖고 있음. 따라서 장수문화연구센터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센터의 역할을 기초연구와 정책개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보건학적 측면)

기초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도가 장수지역인가 ? 도전체가 장수지역인가 ? - 평균수명, 건강여명, 80세이상 노인비율, 사망원인양상 등 2) 제주도 노인들의 건강수준(치매유병율 등) 3) 제주도 노인들의 사회복지 수준(특히 독거노인) 4) 장수지역의 요인규명(의학적, 사회학적 요인)
정책개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환자들의 의료전달체계확립(방문간호 → 3차진료 ↔ 요양) 2) 제주의료원의 노인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 3) 서귀포 복합주거휴양단지의 보건의료지원방향 (실버산업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방향) 4) 노인에 대한 보건과 복지지원에 대한 일원화방안 5) 노인요양병원의 추가 설립방안 6) 관광의료(tourist medicine) 활성화 방안 (휴양을 겸한 종합건강검진센터 활성화) 7) 청정 장수지역으로써의 홍보방안
상품개발	<p>실버휴양산업 활성화, 관광의료활성화, 장수식품개발, 장수의약품개발 청정장수지역 홍보효과 극대화(관광활성화)</p>

■ 활성화 방안

1) 기초연구의 활성화

→ 도내 보건 유관기관 활용(제주의대의 의과학연구소, 보건협회, 알콜센터 등)

2) 자문회의 활성화 (정기적인 소그룹 모임 활성화 → 보고서 제출)

3) 선진 장수촌 지역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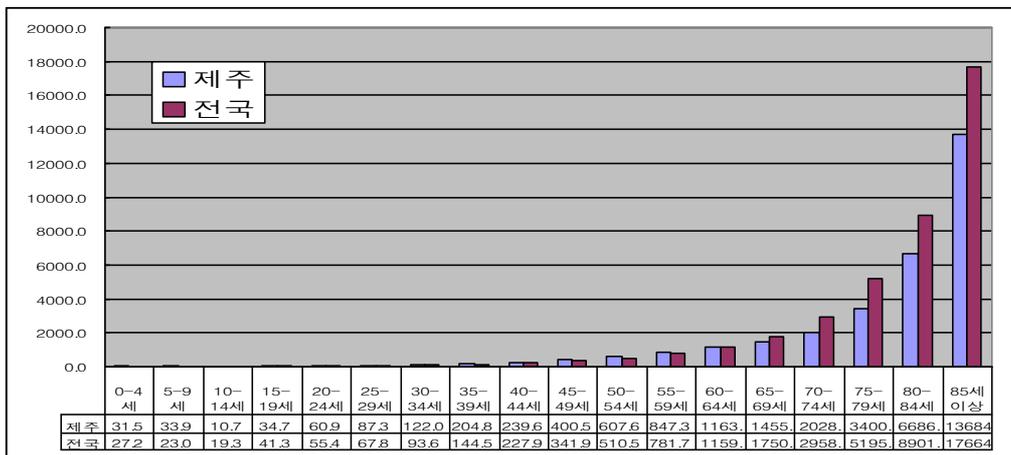
4) 향후 장수문화센터의 상근 연구원 배치 필요

(장수문화센터를 연구소 수준으로 격상필요)

==>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예산지원)

<표> 지역별 사망자 평균 연령 비교(2001년 사망자료)

지역	남		여		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서울특별시	61.85	16.88	71.66	17.32	66.26	17.77
부산광역시	60.87	16.02	71.16	16.00	65.42	16.81
대구광역시	61.17	16.89	71.64	16.72	65.89	17.60
인천광역시	61.31	17.46	71.41	16.78	65.70	17.88
광주광역시	61.00	17.64	71.82	18.29	66.09	18.74
대전광역시	61.88	17.59	71.62	17.01	66.27	17.99
울산광역시	59.17	18.01	70.36	17.98	64.00	18.83
경기도	61.64	17.84	71.24	17.34	65.90	18.25
강원도	63.45	17.14	72.91	16.46	67.47	17.49
충청북도	64.28	16.90	73.59	15.81	68.37	17.07
전라북도	64.36	16.75	73.91	15.96	68.72	17.07
전라남도	64.65	16.43	74.18	16.67	68.85	17.20
경상북도	64.81	16.89	74.18	15.17	68.93	16.81
경상남도	63.16	16.45	72.32	16.12	67.21	16.93
제주도	60.37	17.40	75.03	17.69	67.32	19.00
합계	62.66	17.06	72.40	16.69	66.99	17.57



<그림> 연령별 사망률 비교(2001년 통계청 사망자료)